스포츠동아
2017년 8월 2일 수요일
sportsdonga.com 10판

무장해제 당한 K리그…축구대표팀 조기소집이 씁쓸한 이유

▶8면

한국축구가 또 다시 '대표팀 조기소집'이라는 옛 방식을 꺼냈다. 10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국제기준에 맞춘 틀을 정해놓았지만, 월드컵 9회 연속 진출이라는 명분 아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한국축구의 근간인 K리그의 원칙은 무너졌고 대표팀 선발도 정도를 벗어나려고 한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K리그,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자화상이다.

김기태의 남자는 누구냐?

임창용·김세현·김윤동…KIA 최종마무리 3파전

KIA가 임창용, 김세현, 김윤동(왼쪽부터)으로 이어지는 막강 불펜진을 구축했다. 대권을 향한 절박함으로 김세현을 데려와 약점을 보완했다. KIA는 바람대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며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스포츠동아DB

노련한 임창용·작년 구원왕 김세현·패기의 김윤동 한명은 마무리 두명은 필승조…대권 도전 화룡점정

KIA가 트레이드 마감시한인 7월 31일 진행한 2대2 트레이드로 불펜 즉시전력감인 김세현(30)을 데려왔다. 이로써 호랑이 군단은 시즌 내내 유일한 약점으로 꼽혔던 불펜 전력을 일순간에 보강하게 됐다. 우승을 향한 발걸음에 이전보다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KIA는 김세현의 가세로 당장 마무리 후보군을 3명으로 늘렸다. 최근 뒷문에서 특급 활약을 펼친 김윤동과 베테랑 임창용 그리고 마지막 김세현이 그 주인공들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아직 구위가 올라오지 못한 김세현이 KIA 합류 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당장 마무리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추가됐다는 것만으로도 KIA로선 큰 호재다. 최근 KIA의 뒷문은 주로 김윤동이 담당했는데, 그는 후반기 들어 1.1이닝 이상 마운드를 지킨 경우가 많았다. 7월 28일 두산전에서는 무려 3.1이닝을 소화했다. 후반기 6경기에서 거둔 성적은 3승 무패 방어율 1.86.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김기태 감독도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만큼 김윤동의 체력적인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임창용도 6경기에서 1패1홀드1세이브 방어율 2.70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이를 고려할 때 체력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김세현의 가세는 김윤동과 임창용의 체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긍정적이다. 더불어 상황에 맞춰 3명의 마무리투수가 등판 할 수 있으니 상대팀에게는 위협적이다. 자동적으로 남은 2명의 투수가 필승조로 합류할 수 있어 허리도 더 두꺼워진다. KIA 불펜진은 후반기 12경기에서 4승2패1세이브6홀드 방어율 3.46의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1이닝을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양적 옵션의 증가는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격이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마무리 보직은 김윤동이 계속 맡을 가능성이 크다. 김세현이 트레이드 이후 곧바로 마무리로 등판하기에는 분명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임창용과 함께 필승조로 앞을 지키며 김윤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KIA는 상위 라운드 선수 2명을 내주는 거대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세현을 영입했다. 누가 봐도 우승을 향한 욕심을 드러낸 상황이다. 이 승부수에서 KIA가 얻으려는 것은 명확하다. 3명의 불펜투수는 대권을 꿈꾸는 KIA의 행보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6면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공유의 힘!' 공유의 스타파워가 일본 시장까지 점령했다. 현지 시청자들은 공유가 주연한 드라마 '도깨비'를 방송해 달라고 요구해 9월부터 CS채널 위성극장에서 방송된다. 사진제공 | 매니지먼트 숲

공유에 푹 빠진 일본

CS채널, 팬들 '도깨비' 요청에 편성
3월 '엠넷 재팬' 공개 이어 또 방송

연기자 공유가 한류스타로서 파워를 다시 한 번 과시하고 있다.

일본 CS채널 위성극장이 9월27일부터 공유의 주연작인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도깨비'를 방영한다. 이는 이례적으로 현지 시청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공유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CS채널 위성극장은 매월 '시청자 리퀘스트'라는 코너를 통해 시청자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선정해 편성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도깨비'가 9월의 '시청자 리퀘스트' 작품으로 선정됨에 따라 방송사 측은 이를 전격 편성했다.

앞서 드라마는 국내 종영 후 두 달 만인 올해 3월 17일부터 엠넷 재팬에서 공개됐다. 엠넷 재팬은 CJ E&M이 운영하는 일본 채널. '도깨비'는 CJ E&M이 보유한 국내 채널 중 하나인 tvN을 통해 방송됐고, 그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 역시 CJ E&M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tvN이 방송하거나 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하는 콘텐츠의 엠넷 재팬 방영은 거의 '자동'으로 편성되는 의례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엠넷 재팬은 국내 채널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CS채널 위성극장 방송이 지니는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도깨비'의 일본 방영에 앞서 공유는 지난해 국내 개봉작이자 주연작인 '부산행'을 9월1일 '신간센 파이널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현지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도깨비'로 이어지는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도깨비'에서 900년 이상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목숨을 내던질 만큼 한 여자를 향한 순애보와 카리스마를 표현해 시청자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그는 이전보다 한층 짙어진 성숙함과 남성미로 특히 많은 여성 팬의 시선을 모았다.

이 같은 기세를 몰아 향후 그의 일본 인기는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뉴스디자인 | 강형조 기자